

나주시 '도박 공무원' 인사조치 논란

“일별백계 차원 엄정한 처벌 필요”

“표적신고서 비롯된 경미한 사안”

나주시 공직내부가 최근 도박혐의로 경찰에 입건 조치된 공무원의 인사조치를 놓고 논란이다. 대기발령 등 일별백계 차원의 강력한 문책성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경미한 사안으로 누구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동정론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이모(59·4급) 국장을 비롯한 김모(58·5

급)과장, 6급 공무원 3명 등이 나주시 모 식당에서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입건 조치됐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나주시 공직 내부의 복무기강을 훼손하는 국장부터 감사실의 계장까지 포함돼 공직 내부가 설왕설래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사법기

관의 법적 처벌에 따른 징계에 앞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직원 A(7급)씨는 “이번 사건으로 시민들의 눈초리가 따갑고 공직 내부 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해당 국장은 스스로 이번 사건의 전제적인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으로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또 다른 B(6급) 직원은 “상습도박 차원이 아닌 의도적인 표적신고서 비롯된 것이다”며 “이번 기회에 지역을 갈등과 분열로 몰고가는 형태를 도리어 경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이 공직내부가 이번 도박사건을 놓고 의견이 상반되는 등 또 다른 분열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이번 기회에 그동안 크고 작은 공직기강 문란 행위까지 포함한 큰 틀에서의 문책성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임성훈 시장은 10일 일부 의원들과 점심 회동을 갖은 자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조만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고흥 머드림픽 리허설 고흥군 남양면 선정마을 주민들과 ‘머드림픽’(갯벌 올림픽) 참가 예정팀이 지난 8일 마을앞 갯벌에서 전통 뱃배타기 등 ‘머드림픽’ 최종 리허설을 하고 있다. ‘고흥 선정 머드림픽’은 오는 16~17일 이틀간 열린다. <고흥군 제공>

■ 새 얼굴

“주민 맞춤형 치안활동 펼칠 것”

이유진 강진경찰서장



“군민 곁으로 한발 다가서는 치안활동과 함께 법질서를 확립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일 취임한 이유진(53) 강진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학생들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 대한 주민의 신뢰는 주민이 진정으로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 이 무엇인지 를 파악해 이를 충족시킬 때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목표 출신인 이 서장은 지난 1985년 제33기 경찰간부후보를 시작으로 전남경찰청 경비계장, 광주경찰청 생활안전계장 등을 역임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신안군 ‘간부 성추행’ 시끌

뇌물 치벌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속출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공직기강 강찰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0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청 간부공무원 K(58)씨가 최근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이어진 노래방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박우랑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군수직을 상실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부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다.

모 면장은 건설업자로부터 19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상실했다.

또 신안군이 지난 2009년에 80여억 원을 들여 추진한 방조제 개·보수 사업과 올해 570여억원을 들여 발주한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대해 전남경찰청이 지난달 초 건설회사와 신안군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특히 신안 주민들이 무안군으로부터 분군(分郡) 되자 42년만에 처음으로 감사원에 공의감사를 청구, 감사원 감사가 지난 4월 초순부터 현재 까지 장기간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 A씨는 “간부급 공무원의 적절치 못한 행동이 전체 공무원들의 자존심에 멱칠을 하고 말았다”며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운남기자 wncho@

또 신안군이 지난 2009년에 80여억 원을 들여 추진한 방조제 개·보수 사업과 올해 570여억원을 들여 발주한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대해 전남경찰청이 지난달 초 건설회사와 신안군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특히 신안 주민들이 무안군으로부터 분군(分郡) 되자 42년만에 처음으로 감사원에 공의감사를 청구, 감사원 감사가 지난 4월 초순부터 현재 까지 장기간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 A씨는 “간부급 공무원의 적절치 못한 행동이 전체 공무원들의 자존심에 멱칠을 하고 말았다”며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운남기자 wncho@

또한 군은 이 사업과 연계해 침곡역에서 송정리 5km 구간에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병행해 숲길 산책로 조성과 쉼터,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곡성군 오곡면 송정리에 ‘산림생태 휴양마을’이 조성된다.

곡성군은 5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숲속의 집 5동과 물놀이 시설, 휴양 레저시설 등을 갖춘 ‘산림생태 휴양마을’을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이 사업과 연계해 침곡역에서 송정리 5km 구간에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병행해 숲길 산책로 조성과 쉼터,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민선 5기 1년

김양수 장성군수

나노산단 재추진 성장동력 확보



김양수 장성군수는 지난 4월 민선 5기 취임 1년을 맞아 기념식을 생략하고 황룡면에 소재한 청백리(淸白里) 박수랑 선생의 백비(白碑)를 참배, 눈길을 끌었다.

이는 최근 공직사회에 하두(話頭)가 되고 있는 청렴을 군수부터 솔선해 민선 5기 2년을 부폐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장성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김 군수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민선 5기 출범 당시 ‘겸손한 군수, 따뜻한 군정’을 기조로 내세웠던 김 군수는 지난 1년 동안 내실 있는 군정 운영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역점사업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 노인 복지와 소외계층 지원으로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등 군정 전반에 걸쳐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내부적으로 원활한 조직 소통과 인사·공사·행사에서 혁신화 달리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외부적으로는 ▲나노산단 조성 사업 재추진 ▲1300여억원 규모의 국비사업 확보 ▲마이크로 레이저 지원센터를 비롯한 40개 유망기업 투자유치 ▲국립 심혈관센터 유치 요한행사동원을 과감히 없앴다.

특히 흥길동 축제 등 대규모 행사는 민간위탁으로 전환, 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민간 참여 확산과 주민소득 증대,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공정·투명성을 담은 인사운영 원칙을 마련하고, 승진후보 선수위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인사를 단행해 공직자는 물론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인사·공사 투명성 높여

40여개 기업 투자 유치

쌀 대체작목 적극 육성

공사에서는 수의계약 공개 대상을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공사 무자격업자의 수주를 막아 공사비리와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사에서도 공무원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농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김 군수는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죽령산 둘레길’ 조성과 매주 토요일에 용산역을 출발하는 ‘KTX 죽령산 산소열차’ 등을 추진해 장성군 100만 관광시대의 초석을 다졌다.

김 군수는 “민선 5기 2년을 지역 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다. 올해 시험에서는 전남 지도공무원이 전국 60명 합격자 중 16.7%(10명)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2014년까지 경지 면적의 45%를 유기, 무농약의 친환경 농업(유기농 15%, 무농약 30%)과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오는 2014년까지 전 지도공무원의 50% 이상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유기농 관련 자격증은 ▲유기농업 기사 91명 ▲신업기사 12명 등 총 103명이 보유하고 있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따세요

전남농기원, 지도공무원 50% 취득 박차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산업인력 관리공단 주관의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취득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을 적극적으로 대로변 대로변 망 247평 중심 산업지역, 영업장을 공시지가 13억 투자기준 좋은 매도 6억

• 1층 223㎡ 보2천 2백 1심만원 • 2층 227㎡ 보1천 1백 1심만원 • 3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4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7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8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9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10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11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12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13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14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15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16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17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18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19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20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21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22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23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24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25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26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27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28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29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30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31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32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33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34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35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36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37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38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39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40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41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42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43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44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45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46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47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48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49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50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

• 51층 240㎡ 보1천 1백 1심만원